http://dx.doi.org/10.7230/KOSCAS.2016.43.255

1970년대 한국 명랑만화의 담론분석

Ⅰ. 서론
Ⅱ. 명랑만화와 명랑
1. 한국의 명랑만화와 심의제도
2. ‘명랑’과 ‘명랑화’의 개념
Ⅲ. 분석결과 및 논의
1. 서열화를 통한 자본과 권력의 획득
2. 국가주의적 요소의 강조
3. 능동적 주체로의 호명과 훈육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김대근

초 록

본 논문은 1970년대의 명랑만화인 <꺼벙이>, <도깨비감투>, <요철발명왕>에 대한 담론분석이다. 분석을 위해 한국 명랑만화의 역사와 함께 당시의 심의제도와 유통구조를 고찰하였다. 또한 1920년대부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명랑’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과 의미의 변화 과정에도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명랑만화는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텍스트가 아니며, 당대의 정치, 사회적 맥락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방법은 푸코의 담론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1970년대의 명랑만화를 당시의 사회적 제도에 의해 형성된 담론이라 가정하고, 만화 내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언표로 규정하여 분석하였다. 만화의 대화분석을 통해 당시의 명랑만화가 전파하는 담론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조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당시의 명랑만화는 ‘서열화를 통한 자본과 권력의 획득’, ‘국가주의적 요소의 강조’, ‘능동적 주체로의 호명과 훈육’이라는 담론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담론은 심의와 통제 같은 당대의 권력의지를 바탕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정교하게 담아내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명랑만화, 명랑, 1970년대, 푸코, 권력, 담론

Ⅰ. 서론

만화는 글과 그림을 포함한 다양한 기호로 구성된 시각적 창작물이다. 대중예술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오락성과 상품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적 차원에서 소비되는 특징 때문에 이데올로기, 집단기억, 감정구조 같은 사회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1970년대는 만화의 내용과 형식, 유통구조 등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전 시기의 만화가 대본소를 통하거나, 잡지나 신문의 1~2쪽 또는 4컷 형태로 유통되었던 반면,[1]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화의 유통구조는 어린이 잡지를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1964년 창간된 『새소년』, 1967년 창간된 『어깨동무』, 1969년 창간된 『소년중앙』 등이 그것인데, 이들 잡지에서 돋보이는 것은 만화였다. 1972년부터 국판 사이즈의 크기에 60쪽 내외의 분량으로 만화만을 실은 별책부록이 제공되면서,[2] 어린이 잡지는 대본소 만화와 구별되는 만화 유통의 중요한 창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부모님의 허락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고[3] 가정을 통해 소비되면서, 건전우량만화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시작하였다. 『소년중앙』이 내세운 “안심하고 읽힐 수 있는 아동교양지”[4]라는 구호는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시켜준다. 1960년대 후반부터 3개 방송국 체제의 도입과 국가적 지원을 받은 전자산업의 육성으로 TV 수상기의 보급이 급속하게 늘어났지만,[5]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부족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잡지는 당시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매체로 기능했다.

최근 만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이지만, 1970년대 명랑만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듯하다.

---

1) 박인하 · 김낙호, 『한국현대만화사: 1945~2009』, 두보CMC, 2010, p. 64.
2) 박인하 · 김낙호, 앞의 책, pp. 102~103.
3) 김창남, 『나의 문화 편력기』, 정한책방, 2015, p. 40.
4) 최성일, 「[출판] 1970년대의 어린이 잡지」, 『황해문화』, 2010, 9, p. 386.
5)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 편: 평화시장에서 궁정동 까지 2권』, 인물과 사상사, 2002, p. 104.

명랑만화 캐릭터의 얼굴 구성요소, 신체비례, 행동묘사 같은 제작의 측면을 다루거나,[6] 일상성을 바탕으로 한 명랑만화의 장르적 성격을 규명하는[7]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명랑만화의 지형을 탐색하고, 후속연구 확산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만화가 회화와 다른 점 중의 하나는 인쇄를 통한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는 만화가 상업적인 효과를 지닌 매체이면서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유통하는 유용한 매체임을 인식할 때, 사회적 관점에서 명랑만화를 탐구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이 아쉽다. 왜냐하면 1970년대는 한국 명랑만화사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며,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도 정치, 경제적 요소들이 급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는 북한과의 체제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냉전구도의 긴장이 더욱 깊어지는 시기이다. 아울러 1960년에 3천2백만 달러에 불과 했던 수출 실적이 1969년에는 6억2천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8] 이후 고도성장의 시대로 이어지는 분기점이 된다. 이는 한국 명랑만화와 현대사가 1970년대라는 교차점에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거쳐 온 이정표를 발견해내고 이를 통해 현재를 돌아본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미를 깊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1970년대의 한국 명랑만화 담론(discours)의 양상과 그 조건에 대한 탐구'로 설정하였다. 푸코(Foucault)에 따르면, 담론이란 "동일한 형성의 체계로부터 작성 된 언표(énoncé)들의 집합"[9]인데, 이는 담론이 사회적 관행을 통해 형성됨을 의미하면서 "초월적이거나 자연적인 실체가 아닌 특정 시공간 내에서 구성된 사회적, 문화적 구성

6) 윤장원, 「한국 명랑만화 작가별 캐릭터 표현연구」, 『조형미디어학』, 13(2), 2010, p. 161.
7) 박인하, 「한국 명랑만화 장르의 형성과 발전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8(4), 2012, p. 53.
8) 강만길, 『고쳐쓴 한국 현대사』,창비, 2006, p. 424.
9) 미셸 푸코, 이정우 역,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2000, p. 157.

물”[10]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1970년대의 명랑만화를 당대의 사회적 관행과 제도에 의해 형성된 ‘담론’이라 가정하고, 만화 내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푸코가 담론의 기본적인 단위로 제시한 ‘언표’[11]로 규정하여 분석하고자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당대 권력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담론분석은 “담론의 생산과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지식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것”[12]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의 대상은 한국 명랑만화에서 작가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함께, 작품의 대중적 인지도를 고려하였다. 이는 대중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만화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1970년대 명랑만화 유통의 주된 창구가 어린이 잡지였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당시 어린이 잡지를 통해 연재된 만화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길창덕은 1960년대 이전의 명랑 만화적 요소를 1970년대의 연재물과 결합해 명랑만화의 장르적 특징을 완성한 작가이며,[13]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꺼벙이>는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두 개의 잡지사를 통해 연재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따라서 <꺼벙이>를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또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14]하며 당시 어린이 잡지의 명랑만화를 이끌었던 윤승운과 신문수[15]의 <요철 발명왕>과 <도깨비 감투>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꺼벙이>는 1970년 『만화왕국』에서 2년 동안 연재된 이후 『소년중앙』으로 자리를 옮겨 4년간 연재되었으며,[16] <도깨비 감투>는 1974년 5월부터,[17] <요철 발명왕>은 1975년 2월부터 『어깨동무』에 연재되기 시작하였다.[18] 실제 분석은 2000년대 이후에 출

10) 허경, 『미셸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 읽기』, 세창미디어, 2016, p. 98.
11) 미셸 푸코, 『지식의 고고학』, 앞의 책, p. 119.
12)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나남, 2004, p. 20.
13) 박인하, 『꺼벙이로 웃다, 순악질 여사로 살다』, 하늘아래, 2002, p. 124.
14) 장상용, 『한국 대표 만화가 18명의 감동적인 이야기 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04, p. 215.
15) 서찬휘, 「로봇찌빠의 아버지 신문수」, 『한국의 만화가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0, p. 90.
16) 황민호, 『내 인생의 만화책』, 가람기획, 2009, p. 82.
17) 황민호, 앞의 책, p. 117.
18) 윤승운, 『요철凹凸발명왕 1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0, p. 6.

판된 복간판을 사용하였는데, <꺼벙이>와 <도깨비 감투>는 2001년 바다출판사, <요철 발명왕>은 2010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복간판을 사용하였다.

Ⅱ. 명랑만화와 명랑

1. 한국의 명랑만화와 심의제도

한국의 만화는 19세기 말 신문, 잡지 같은 근대적 인쇄매체의 도입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1906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지인 『가뎡잡지』의 표지에 선화(線畵)형식의 그림이 등장하였고,[19] 1909년 『대한민보』에 이도영의 삽화가 연재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한국 만화가 태동하였다.[20] 이후, 1923년 창간된 잡지 『어린이』에 안석주의 <씨동이 말타기>가 실리면서 우리 손으로 그려진 아동만화가 시작되었다.[21] 1930년대에는 『신동아』와 『동아일보』를 통해 이주홍, 박천석, 안경, 김현재 등의 작가가 아동만화의 전통을 잇고,[22] 해방 직후인 1945년 12월 1일 김용환은 『어린이신문』에 <복남이의 모험>을 발표하였다.[23]

1950년대 후반에는 새로운 유통체제인 대본소가 도입되었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창작과 소비의 틀을 갖추고 한국 만화가 다양한 장르로 분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24] 1960년대의 만화는 대부분 이러한 대본소를 통해 유통되었다. 당시의 대표적인 명랑만화중 하나인 방영진의 <약동이와 영팔이>(1963)는 “학생생활명랑만화의 효시”[25]로 알려져 있다. 이후 임창의 <땡이의

19) 손상익, 『한국 만화통사』, 프레스빌, 1996, p. 88.
20) 서은영, 「1910년대 만화의 전개와 내용적 특질: 『매일신보』 게재 만화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0, 2013, p. 139.
21) 최열, 『한국만화의 역사: 우리만화의 발자취 일천년』, 열화당, 1995, p. 45.
22) 최열, 앞의 책, p. 73.
23) 최열, 앞의 책, p. 85.
24) 박인하 · 김낙호, 앞의 책, p. 20.
25) 박재동, 「생활의 숨결에 유머를 불어넣은 작가, 방영진」, 『한국만화의 선구자들』, 열화당, 1995, p. 146.

사냥기>(1964), <땡이와 영화감독>(1965) 등의 땡이 시리즈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무렵 등신대 인물형상을 사용하는 극화체 만화에서 인물의 형태를 변화시킨 희화체 양식이 명랑만화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된다.[26]

이 시기부터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만화와 관련된 심의제도이다. 일제에 의해 시사만화가 검열, 삭제되는 사례[27]가 있긴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인 제도의 수립과 개선을 통해 만화에 대한 심의와 통제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1961년에는 '한국아동만화자율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만화가들로 이루어진 이 단체는 자율정화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출판사의 뇌물수수, 편파적 심의 등의 문제로 인해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했다.[28] '한국아동만화자율회'가 가지는 의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만화에 대하여 사전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5·16 직후에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에서 만화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간파한 당대 권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1968년 9월 9일에는 문화공보부 산하에[29] '아동만화윤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심의가 구체화, 본격화되기 시작한다.[30] 만화에 대한 심의가 민간이 아닌 정부의 통제 아래 들어오게 된 것이다. 당시 심의규정의 일부를 살펴보면 적원색(赤原色)의 사용을 피하고, 이성간의 연애관계를 묘사, 표현해서는 안 되며, 성인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필요이상의 강조 등에 각별한 주의를 환기한다고 되어있다.[31] 적원색을 쓸 수 없게 한 것은 남북한의 체제경쟁을 반영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만화윤리위원회'는 이후 1970년 1월21일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로 통합되었고 심의는 더욱 강화되었다.[32] 당시의

---

26) 최열, 앞의 책, pp. 117~120.
27) 박인하·김낙호, 앞의 책, p. 62.
28) 한영주, 『다시 보는 우리만화: 1950~1969』, 글논그림밭, 2001, p. 208.
29) 권경민, 『세계 만화미학론』, 심포지움, 2009, p. 50.
30) 황민호, 앞의 책, pp. 80~81.
31) 손상익, 『한국만화통사(하): 1945년 이후』, 시공사, 1998, pp. 274~275.
32) 김성호, 『한국 만화가 55인』, 프레스빌, 1996, p. 349.

엄격한 심의기준은 작가의 창작의지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에 충분하였다. 만화가 이우정의 증언을 통해 당시의 경직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 극화 중에 판잣집이나 거지가 등장되어서도 안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방에 잠을 자는 모습을 그려서는 안 되는 것이 당시의 심의 기준이었다. 심지어 도망가는 도둑을 경찰이 '거기 서라' 고 했을 때, 도둑이 도망가게 그려서도 안 되었다.[33]

1972년 1월 31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 정병섭이 만화에 등장하는 환생을 믿고 목을 매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34] 이를 계기로 불량만화 추방 캠페인이 전개되면서 경찰의 일제단속이 펼쳐지게 된다.[35] 무등록 출판사, 심의필증 누락과 같은 이유 외에도 책이 낡아 어린이 시력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불량만화의 이유였고, 압수되어 소각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36] 이 시기를 기점으로 "1960년대 장르적으로 분화하며 화려하게 꽃 피우기 시작한 한국만화는 일순간 조악한 사회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37]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명랑만화는 1960년대 후반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어깨동무』, 『소년중앙』, 『새소년』 등의 어린이 잡지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만화 유통의 창구로 자리 잡게 된다. 『어깨동무』는 1969년 4월 14일, 대통령 부인 육영수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육영재단을 통해 발행되었고, 『소년중앙』과 『새소년』은 각각 중앙일보사와 새소년사에서 발행되었다. 어린이 잡지의 만화는 "만화방 만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의에서 자유로웠는데" [38],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확산의 규모를 늘릴 수 있었다. 당시의 또 다른 현상은 어린이 잡지의 별책부록 만화가 인기를 끌자 그 만화들을 모아 문고판으로

33) 김성호, 앞의 책, p. 350.
34) 김성호, 앞의 책, p. 349.
35) 권경민, 앞의 책, p. 50.
36) 「불량만화 2만권 압수」, 『동아일보』, 1972년 2월 3일, 제6면.
37) 박인하 · 김낙호, 앞의 책, p. 92.
38) 박인하 · 김낙호, 앞의 책, p. 102.

출판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대표적 만화문고인 '클로버문고'를 기획한 박현재에 의하면 "만화방이 아닌 서점에서 당당하게 판매되면서, 부모님에게 권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향하였으며,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39]

1980년대에도 명랑만화는 그 맥을 이어간다. 1982년에는 『어깨동무』를 발행하던 육영재단에 의해 만화로만 이루어진 잡지인 『보물섬』이 출간되었고,[40] 이후 『만화왕국』이 창간되면서 전문 만화잡지 시대가 열리게 된다. 1980년대의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본 만화의 영향이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소년점프』를 통해 유통된 <드래곤볼>, <슬램덩크>, <유유백서> 등의 일본산 만화가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41]

이상의 한국 명랑만화와 관련 제도에 대한 개괄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만화는 여타 대중문화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박정희가 등장하는 1960년대 이후부터는 민간이 아닌 국가 주도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심의가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은 그 통제의 정도가 매우 강력하고 엄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이전 시기 만화유통의 창구였던 대본소 체제의 만화를 불량만화로 규정하면서 사회적 배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만화방에서 보는 만화를 달갑게 여기지 않게"[42] 되었고, 정부의 지속적 캠페인과 단속을 통해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셋째, 대본소 만화의 대안으로 어린이 잡지를 통한 만화유통이 본격화 되었다는 것이다. 어린이 잡지는 "핵심 콘텐츠로 만화가 자리 잡으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43]했고, 이후에는 문고판으로 발간되어 서점을 통한 유통

39) 박현재, 「푸르른 클로버의 추억」, 『클로버문고의 향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09, p. 12.
40) 박인하, 『장르만화의 세계』, 살림, 2004, p. 18.
41) 박인하, 『꺼벙이로 웃다, 순악질 여사로 살다』, 앞의 책, p. 147.
42) 박현재, 앞의 책, p. 12.
43) 김성훈, 「한국만화사」, 『한국만화를 말하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4, p. 180.

이 본격화 되면서 확산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심의와 통제의 확대’, ‘대본소 만화의 배제’, ‘어린이 잡지를 통한 유통창구의 단일화’라는 세 단계를 통해 어린이 잡지 만화는 불량만화와 대비되는 우량만화의 입지를 굳히게 된다. 아울러 공적인 성격을 지닌 육영재단이나 중앙일보사 등에서 직접 만화를 발행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더욱 굳어졌다. 어린이 잡지 만화는 사회에서 권장하는 올바른 이데올로기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고, 다달이 정기적인 발행과 소비를 통해 그 인식의 확산이 가속화 되었다. 만화 장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수용자의 반복 체험을 통해 특정한 의미체계를 구성”[44]하기 때문인데, 그러한 의미를 전파하기 위한 제도의 완성이 1970년대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명랑’과 ‘명랑화’의 개념

명랑만화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해방이후 인기를 끌었던 ‘소년소설'이 장르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명랑소설’이 등장하게 되었고,[45] 이 과정에서 명랑만화라는 장르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명랑이란 단어는 밝고 유쾌한 감정의 상태를 뜻한다. 이미 1920년대부터 명랑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1927년 『동아일보』 동요 공모에 당선된 이낙영의 ‘달밤’이라는 동요를 보면 쏟아지는 달빛의 밝고 환한 감정상태를 명랑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밧게서 누군가 나를불너요
나홀로 자리에 누엇슬때에
창문을 열고서 내다보면은
달빗만 한업시 명랑하여요
(하략)[46]

---

44) 박인하, 『장르만화의 세계』, 앞의 책, p. 9.
45) 문수연, 『최요안의 명랑소설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p. 17.

날씨와 같은 기상상태를 표현할 때도 명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작금의 명랑한 날씨는 그야말로 천고마비, 중추의 가절임이 틀림없다”[47]는 신문기사는 날씨가 맑고 쾌청한 상태를 명랑으로 표현한다. 이 외에도 시야가 밝고 환하다는 의미도 있다. 서울 종로 관철동 ‘광신안경점’의 1974년 광고에 적혀있는 ‘성실히 조제된 안경은 시야가 항상 명랑합니다’라는 문구가 그런 예이다. 이런 몇 가지 용례로 볼 때 명랑의 의미는 감정, 날씨, 시야 등이 밝고, 맑고, 환하다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1990년대 초까지 빈번히 쓰인 ‘명랑화’란 말이 있다.[48]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명랑화란 의미는 오염 없고 잘 정돈된 상태를 이야기 한다. 1937년의 ‘도시의 명랑화’란 제목의 신문사설은 도시의 명랑화를 위해 교양위생을 위한 시설의 완비와 함께 오물소제와 같은 주거환경의 청결을 강조한다.[49] 1962년의 기사에서는 서울의 명랑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비위생적 하수구의 개량, 공원의 미화, 녹지대의 관리, 가로수의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50] 이런 사례를 통해 명랑화는 환경과 관련된 주변의 청결 및 정리정돈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랑화가 더욱 자주 쓰인 분야는 전쟁 상황이나 정치 분야였다. 중일전쟁이 시작된 1937년, 전쟁 상황을 전하는 기사에 “홍구지대가 명랑화 됨도 불원(不遠)하다”[51]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때 명랑화의 의미는 저항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후에도 명랑화는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1962년 2월28일의 『동아일보』는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가 내무위를 시찰하며 지시한 내용을 기사화 하고 있다. 기사는 “치안확보를 철저히 하여 사회를 명

46) 「달빛 당선동요」, 『동아일보』, 1927년 2월 21일, 3면.
47) 「횡설수설」, 『동아일보』, 1931년 9월 28일, 1면.
48) 소래섭,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웅진지식하우스, 2011, p. 19.
49) 「도시의 명랑화」, 『동아일보』, 1937년 9월 18일, 3면.
50) 「환경 정리정화로 서울의 명랑화를」, 『동아일보』, 1962년 3월 5일(석간), 1면.
51) 「虹口地帶는 明朗化 陸戰隊副官 談」, 『동아일보』, 1937년 8월 20일, 1면.

랑화 할 것과 교육계의 분규를 일소할 것을 지시”한다고 적고 있다.[52] 이때의 명랑화는 치안이 확보되어 안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1981년에 발행된 간행물인 『지방행정』에는 ‘범도민 생활 명랑화 운동 전개’라는 전라남도의 시책이 소개되어 있다. 이 시책에 따르면 도민의 명랑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소개되어 있는데, 관련 시책의 홍보 및 서명운동, 공중질서와 공중도덕의 확립, 도민헌장, 도민찬가 보급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시책의 가장 큰 목적은 도민간의 중상모략을 배격하여 명랑한 도민상을 확립하고, 사회에 대한 부정과 비판의식을 개선함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확립하는 데 있다.[53] 이 경우의 명랑화는 사회적 비판이 없는 상태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920년대부터 쓰인 명랑의 의미는 맑고, 쾌청하고, 밝다는 의미와 더불어 “체제에 저항하는 것들을 억압하고 체제가 요구하는 인간만을 양성하기 위한 규율 담론”이라 할 수 있으며, “체제 순응적 감정과 가치는 모두 명랑이라는 코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54] 이러한 명랑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미로 볼 때, 명랑만화는 “밝고 유쾌하고, 화창하다”[55]는 만화의 내적 요소뿐 아니라 그 주변 조건인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함께 파악되어야함을 시사한다.

Ⅲ. 분석결과 및 논의

1970년대의 명랑만화는 월간잡지를 통해 유통되었는데, 월 단위의 학교 일정과 맞추어 만화가 진행 되면서 ‘일상성’이라는 특징이 부가되었다.[56] 일상이란 진기하거나 특별한 사건이 아닌 하루를 단위로 되풀이되는 삶을 의미한다. 명랑만화가 일상성을 확보하게 된 이유에는 월간잡지를 통한 매체의 유통주기와 시간

52) 「치안확보로 명랑사회를」, 『동아일보』, 1962년 2월 8일(석간), 1면.
53) 소래섭, 앞의 책, pp. 19~20.
54) 소래섭, 앞의 책, p. 170.
55) 박인하, 『꺼벙이로 웃다, 순악질 여사로 살다』, 앞의 책, p. 119.
56) 박인하, 앞의 논문, p. 53.

적 순환이라는 상관관계가 있다.

일상성은 공간적 성격과도 관계가 있다. 일상은 특정한 공간이 아닌 평균적인 삶이 영위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며, 그 공간의 성격을 통해 일상의 특성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상에 대한 접근은 "일상성을 생산하는 사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57]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는 일상이 문화나 이데올로기 같은 다양한 조건이 반복되는 영역이며, 이를 통해 사회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세 편의 만화를 통해 재현되는 공간은 서울의 어느 동네이다. 그런데 만화에 등장하는 서울은 공간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익명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집을 포함하여 경찰서, 학교, 병원으로 설정된 공간은 그 역사성과 고유성이 제거된 채 존재하는데,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매 회마다 등장하고 사라지는 익명성을 통해, 어찌 보면 가상의 공간이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만화가 그려진 1970년대는 박정희 집권 이후 시작된 경제개발계획, 국토개발계획 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며, 도시화, 산업화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이다. 도시의 확대,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 등이 가시화되는 시기임에도 공간에 대한 익명성 전략은 이러한 문제의 분리를 가능케 해준다. 이것이 의도치 않은 우연성에 근거한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전략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맥락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만화를 통한 이데올로기의 전파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준다. 푸코의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담론의 형성과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장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열화를 통한 자본과 권력의 획득

분석의 대상으로 정한 세 개의 만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숫자는 아마도 '1'과 '100'일 것이다. '1'은 1등

57)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4, p. 68.

을 의미하며, ‘100’은 100점을 의미한다. 1등과 100점을 원하는 부모와 주인공들의 끊임없는 대립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만화의 주된 이야기 구성 방식이다. 꺼벙이의 장난과 요철이의 발명은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로 설정되어 있으며, 혁이의 도깨비감투도 같은 기능으로 작용하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요철이　다신 발명 안하고 공부만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1등만 하겠어요! 하늘과 땅에 맹세하겠어요!
(요철발명왕, 어깨동무 1975년 12월호 별책부록)

혁이　올 여름방학 때는 해수욕장 꼭 데리고 가주셔야 돼요!
아버지　허허허... 네가 1등 하면 꼭 데리고 간다고 약속을 하지!
(도깨비감투, 4권)

꺼벙이　부모님 마음을 늘 즐겁게 해드릴 것이 없을까?
꺼실이　늘 100점만 받으믄 되는데, 오빠 실력으로는 불가능 할 끼고...
(꺼벙이, 어버이에게 효도를 편)

1등이란 무엇이며, 왜 1등이 강조되는가? 1등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전제로 한다. 100점은 1등이 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이고, 1등 이라는 의미 안에는 개인의 서열화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푸코에 따르면 서열은 규율(discipline)을 통해 확립되고, 이를 통해 사회 내 개인의 배치와 신체의 개별화를 이루게 된다.[58] 본래 규율은 서양의 수도원에서 활용되어 온 제도이지만, 17세기와 18세기를 거치며 학교, 군대, 공장으로 전파되면서 ‘지배의 일반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59] 이는 권력의 효과이자 대상이며, 근대적 주체인 ‘개인’을 만들어 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율이 실현되는 대표적인 예가 시험이라 할 수 있는데, 시험은 개인에 대한 평가와

58)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나남, 2003, p. 230.
59)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앞의 책, p. 216.

분류, 사회적 배치와 같은 기능을 가시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국의 근대교육이 1880년경 일본을 경유하여 이식된 서양의 근대적 교육제도를 모델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60] 푸코의 이러한 주장이 한국의 근대적 교육에 일정부분 적용되고 있음을 간과하기 힘들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근대교육이 실현될 당시, 한국이 직면한 역사적 상황도 개인의 서열화를 가속화 했다. 경쟁의 승리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며 가장 효과적인 생존의 방식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6·25 기간 중 주변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였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등장하는 1950~60년대를 거치며 경쟁의 승리는 출세와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방편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러한 서열의 상위를 독점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본과 권력의 획득과 연관된다.

꺼벙이　딴 애 할아버지들은 모두 장군이다. 좌의정이다 하는데 어쩜 우리 할아버지들 중에는 한분도 그런 분이 안계시죠?

아버지　그야 모두 너처럼 공부를 게을리 한 탓이니라.

꺼벙이　뭐? 나처럼 공부를, 게을러. 결심!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 국무총리.

(꺼벙이, 할아버지 자랑 편)

요철이　그래, 내 발명품이 완성되면 나는 떼돈을 벌게 되어 있다고.

(요철발명왕, 어깨동무 1975년 6월호 별책부록)

한국사회에서 권력과 자본은 매우 밀접한 상호관계를 통해 전개된다. 한국에서 최초로 사적 자본가가 등장하는 시기는 1950년대라고 할 수 있다. 8·15 직후의 국가 자본은 일본인이 소유했던 자산이 대부분이었는데, 국가가 이 자산을 민간인에게 불하하는 과정을 통해 1950년대 중후반 한국사회에 사적 자본가들이 등

60) 정규영, 「미셸 푸코의 '규율 권력'과 근대교육」, 『교육사학연구』, 23(2), 2013, p. 159.

장하게 된 것이다. 일본인 소유의 자산은 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74호로 공포된 '귀속재산처리법'을 통해 민간에게 매각되었다. 이 법률의 제37조와 제38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관재청을 두고, 관재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에 관재국 또는 출장소를 두며, 각 기관의 명칭과 관할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61] 당시 귀속 기업체를 불하받은 자본가들의 일부는 이후 한국사회의 '재벌'로 성장하게 되는데[62], 그 선택이 국가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이후에도 국가는 사적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6·25 이후,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해 적립된 대충자금의 62.4%가 재정 투융자로 활용되었다.[63] 그 자금의 대부분은 산업은행을 통해 융자되었는데,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집행되었다. 따라서 융자를 얻는 것이 기업에게는 큰 이득이었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였다. 1960년대에는 차관의 도입이 큰 특혜였다. 1968년 조선일보사는 신문사 건물과 호텔을 짓기 위해 일본에서 4천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들여오게 된다.[64] 당시 국내 금리는 연 26%였는데, 상업차관의 금리가 연 7~8%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차관을 승인받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막대한 이익이라는 의미이다.[65] 이러한 몇 가지 사례들은 해방 이후 6·25를 거치며 국가권력과 사적자본이 매우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성장해 왔음을 알려주고 있다.

결국 1970년대의 명랑만화가 '서열화를 통한 자본과 권력의 획득'이라는 담론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일본을 통한 서양의 근대적 교육체제의 수용, 이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같은 역

61) 공제욱, 「1950년대 국가 정책과 자본 축적」,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1945~1991: 고난과 희망의 민족사』, 소나무, 1994, p. 152.
62) 공제욱, 앞의 책, pp. 157~160.
63) 공제욱, 앞의 책, p. 161.
64)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 편: 평화시장에서 궁정동 까지 1권』, 인물과 사상사, 2002, p. 249.
65) 김해식, 『한국언론의 사회학』, 나남, 1994, pp. 119~120.

사적인 맥락, 근대적 자본과 권력의 결합과정 같은 외재적 조건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가주의적 요소의 강조

1970년대의 명랑만화가 반공교육[66]과 반공이데올로기[67] 같은 냉전논리를 강조하고 있음은 이미 지적되어왔다. 당시는 남북한이 극한 대립을 보이는 시기이다. 1968년 한해에만 김신조를 포함한 무장공비 남파 사건,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고, 1976년의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으로 이어지면서 반공에 대한 국가적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요철이　너무 비참하다. 지구 인류도 모두 정신 차려야 돼.
맹물이　이런 판에 동족을 죽이려고 전쟁 준비하는 괴수 김일성도 있으니.
(요철발명왕, 어깨동무 1977년 1월호 별책부록)

병사 1　아, 추석 때가 되니 고향이 그립구나!
병사 2　안 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나쁜 놈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이 때, 우리는 더욱 더 철통같은 방위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암, 그래야지!
(도깨비감투, 2권)

이러한 내용의 등장은 단순히 당시의 사회적 현상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의도된 측면이 적지 않다. 당시의 만화는 국가주도의 심의기구를 통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심의기구가 아닌 정보기관에서도 만화에 대한 통제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된 이

66) 신현성, 「요철발명왕: 요란한 발명이야기」, 『클로버문고의 향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09, p. 73.
67) 박인하, 「원시소년 똘비: 원시시대라는 판타지 공간에서 벌어지는 해프닝」, 『클로버문고의 향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09, p. 63.

틀 후에 만화가 길창덕은 정보기관에 연행되어 고초를 겪기도 한다.[68] 이러한 사례는 당시의 명랑만화가 국가주의에 포획되어 이데올로기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국가주의와 관련된 또 다른 양상은 당대 정권의 성과와 정책을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온 '국토건설을 통한 조국의 근대화' 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게 된다. 1970년도에 완성된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역 고가도로, 1974년 8월15일 개통된 지하철 1호선, 1976년에 완성된 청계고가도로 등이 그러한 정책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그중 지하철 1호선은 서울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내용들이 만화에 반영되고 있다.

창수　종로에서 지하철을 타면 곧장 수원까지 갈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해! 지금 우리가 종로 밑바닥을 달리고 있는 거야!
혁이　꿈만 같구나. 이야! 벌써 영등포를 지나 푸른 들판이 보인다!
(도깨비감투, 2권)

친구　너 타봤니? 지하철. 나도 타봤다.
꺼벙이　그래 어떠니?
친구　말도 못해. 땅 속을 쌩~하고 달리는데, 아주 기분 좋아.
(꺼벙이, 지하철 편)

이와 더불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에너지 문제는 당시 정권의 시급한 선결과제였다. 1960년대 중반까지 에너지 정책은 석탄이 중심이었지만, 이후 울산에 석유화학계열의 공장이 완공 되면서 그 방향이 '주유종탄(主油從炭)'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3년 10월 6일에 터진 제4차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원유가격이 폭등하게 되는데, 10월 16일에는 원유가격이 70% 상승하게 되고, 12월 23일에는 다시 128%로 상승하는 고비를 맞게 된다.[69] 이 여파는 다시 연탄파동으로 이

68) 박인하, 『꺼벙이로 웃다, 순악질 여사로 살다』, 앞의 책, pp. 109~110.

어지면서 기존의 에너지 정책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1976년 2월과 4월, 요철발명왕에는 당시 에너지에 대한 간절함을 반영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요철이　내가 지금 연구하는 것은 쓰레기로 석유를 만드는 거야.
(요철발명왕, 어깨동무 1976년 4월호 별책부록)

요철이　내가 지금 연구하는 건 태양열 이용에 관한 연구거든!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석유, 석탄, 생산이 부족해서 크게 에너지난을 겪고 있단 말야. 그래서 앞으로 인류는 석유, 석탄대신 태양열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요철발명왕, 어깨동무 1976년 2월호 별책부록)

쓰레기로 석유를 만든다는 발상은 기발하고 엉뚱하다는 측면에서 명랑만화답지만, 명랑만화가 지향하는 일상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가정 에너지의 대세는 석유가 아닌 연탄이었기 때문이다. 1979년 도시주택의 경우 연탄구들이 90.5%, 연탄보일러가 6.3%로 전체의 97%에 가까운 가정이 연탄을 쓰는 반면, 기름보일러를 쓰는 가정은 3.2%에 불과했다.[70] 1974년 10월 15일에는 경기도 시흥에서는 주부들이 연탄집게를 들고 나와 연탄공급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질[71] 정도로 서민들은 연탄에 대한 필요를 체감했다. 물론 유류파동의 여파를 난방용 에너지에만 한정해서 볼 문제는 아니다. 유류인상으로 인해 1974년 9월말 도매물가 33.5%, 소비자 물가 22.3%라는 6·25 이후 최고의 등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72] 석유나 태양열 에너지를 발명한다는 기발하고 재미있는 설정으로 만화는 만들어 졌지만 그 이면에는

69)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 편: 평화시장에서 궁정동 까지 2권』, 앞의 책, p. 100.
70) 「주택 95.4%가 재래식 난방 가정연료 현대화 시급하다」, 『경향신문』, 1979년 1월 10일, 제1면.
71) 권보드래, 「연탄의 추억: 연탄파동과 오일쇼크 그리고 유신의 에너지 정책」, 『박정희 모더니즘: 유신에서 선데이서울까지』, 천년의 상상, 2015, p. 238.
72) 이정은, 「1970년대 초중반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 박정희정부의 대응」, 『한국사학보』, 38, 2010, p. 274.

에너지에 대한 국가의 간절함이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파동 이후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된다.[73] 만화에는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보인다.

맹물이 이건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수출 품목 제 1위를 차지하게 될 거야.

(요철발명왕, 어깨동무 1976년 8월호 별책부록)

아버지 휴우~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쉴 틈이 없거든. 그러나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걸 생각하면 흐뭇하기 그지없단 말야.

(요철발명왕, 어깨동무 1976년 11월호 별책부록)

만화가 그려진 1970년대 중반은 수출을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었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기간 중 한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수입대체산업의 비율은 36%였고, 수출산업의 기여도는 10%였다. 그러나 박정희 집권 이후인 1963년부터 1973년 사이의 수치는 이와는 반대로 나타난다. 이 기간 중 수입대체산업의 경제성장기여도는 10%인데 비해 수출산업의 기여도는 36%에 이른다.[74] 당시 등장했던 '수출역군', '산업전사'와 같은 군대식 표현들은 수출을 생사의 문제가 걸린 생존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이러한 수출에 대한 강조와 함께 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도 나타난다.

꺼벙이 하기는 아버지 말씀이 옳아. 사람은 언제 어떤 불행이 닥쳐올지 모르니까 평소에 저축하는 버릇을 길러야 하는 건데..

(꺼벙이, 저축을 하자 편)

---

73) 이정은, 앞의 논문, p. 268.

74) 한배호, 『한국정치변동론』, 법문사, 1994, p. 181.

경비　어디다 낙서를 하는 거야? 은행 바닥 지저분하게!
친구　계산해보는 거여요! 어쨌든 삼천만 명이 일 원씩이면 삼천만 원! 넓은 바닷물도 빗방울이 하나하나 모여서 된다는 걸 아셔야죠! 모래알이 모여 산이 되고요!
(도깨비감투, 4권)

수출과 저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출이 활성화가 되면 국내생산 중 내수에 의해 실현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 이때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국내 재화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국내소득에서 국내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야 한다. 이는 수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축의 비중이 그만큼 늘어나야 함을 의미한다.[75] 따라서 만화를 통해 강조되는 당시의 저축장려운동은 개인의 미래를 염두에 둔 운동이라기보다는 수출신장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밀수'는 수출 중심 경제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범죄였다. 당시의 명랑만화에는 밀수근절에 대한 강조가 빠지지 않는다.

경찰　어 이건 밀수품 아냐? 이거 날아온 쪽이 어디지?
(꺼벙이, 1일 파출소장 편)

혁이　여기는 장미 호텔 159호실인데 밀수범들이 있어요. 억대의 밀수범들입니다.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
(도깨비감투, 1권)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부터 밀수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시 밀수선은 발견 즉시 발포, 격침해도 좋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의 대상이었다.[76]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66년 삼성의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 여당의원은 "공화당 정권의 운명과도 관련될 만한 중대문

75) 서익진, 「한국 산업화의 발전양식」,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 창비, 2003, p. 72.
76) 「밀수배 근절토록」, 『경향신문』, 1962년 10월 20일, 제7면.

제”[77]라 표현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학습효과로 인하여 1970년대에는 강력한 밀수단속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 밀수는 다른 범죄들 보다 더욱 강력하게 단속, 처벌 되었고, 그것은 밀수가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제개발의 저해요인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78]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만화를 통해 간첩신고, 에너지문제 해결, 국토개발, 수출장려, 밀수근절과 같은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이러한 전략은 만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강조하면서, 국가의 정책을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력은 명랑만화를 하나의 효율적 통제 및 동원 장치로서 최대한 활용했던 것이다.

3. 능동적 주체로의 호명과 훈육

만화를 통해 드러나는 담론의 하나는 독자인 어린이를 능동적 주체로 호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밀수단속, 산불감시, 간첩체포와 같은 국가적 영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능동적 주체로서의 어린이를 강조한다.

경찰　이놈은 아주 악질 밀수범이란다. 너 때문에 잡았으니 상금과 상품 그리고, 아울러 1일 파출소 소장을 임명한다.
꺼벙이　하! 이게 웬 떡이냐?

(꺼벙이, 1일 파출소장 편)

맹물이　요철아. 엎드려! 저기 가...가...간첩이 나타났어.
요철이　뭐...간첩이?
맹물이　봐, 틀림없지. 어서 신고하자.

(요철발명왕, 어깨동무 1976년 9월호 별책부록)

77) 「정부운명과 관련될 문제 여일부 말」, 『동아일보』, 1966년 9월 17일, 제1면.
78) 「경제질서 문란행위 척결」, 『매일경제신문』, 1977년 2월 4일, 제1면.

꺼실이　우리 식구끼리 산불 감시반을 만들어서, 일요일마다 산에 올라가 계몽도 하고 감시도 하면, 새마음 운동도 되고 안좋은가요?
꺼벙이　어쭈 꺼실이 유식해 졌어.

(꺼벙이, 산불조심 편)

이런 자발적 행동을 키우기 위해 실시했던 것이 '새마음 운동'이다. 위의 꺼실이 대화에 나타나는 '새마음 운동'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전국규모의 이데올로기 주입 운동이다. 이 운동의 목적은 당시 한국 사회에 "개인적인 충성에 입각한 위계질서"[79]를 만드는 것이었다. 간첩이 등장 할 수 있다는 불안한 사회상황의 강조와 함께 이러한 위계질서의 확립은 국민으로 부터 이데올로기적 순응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때의 위계질서는 강요가 아닌 자발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아버지　어쨌든 오늘 우리 산불감시반의 성과는 컸다.
꺼실이　산불도 빨리 끄고 계몽도 하고요.

(꺼벙이, 산불조심 편)

경찰　아니, 꼬마야! 너 혼자서 어떻게 이 자들을?
혁이　하하하 제가 태권도 1단이거든요! 어쨌든 이놈들은 억대의 밀수범들입니다. 우선 저 가방과 주머니를 뒤져서 밀수품들을 압수하셔요.

(도깨비감투, 1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자발성은 신고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 직접적인 대결이나 참여를 통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명랑만화가 과장과 허구를 그 표현의 전략으로 차용했다 하더라도 초등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의지의 결정성은 당시 진행된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와 같은 서구의 근대정신과 함께 협동이라는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결합시켜 만

79)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나남출판, 1997, p. 208.

들어낸 정신운동이라 할 수 있다.[80] 이러한 자발적인 정신계발을 강조한 측면 때문에 새마을 운동은 '새사람 운동'으로 불리기도 하였다.[81] 만화는 질서와 노력의 강조, 게으름 타파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강조한다.

의사　세상 사람들이 모두들 제멋대로 한다면, 질서가 문란해서서 사람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안 모양이군요.
꺼벙이　쳇! 제멋대로 하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다가 큰 코 다칠 뻔 했지 뭐야.

(꺼벙이, 멋대로 한 결과 편)

혁이　최후의 1분까지 뛰면 안 될 게 없다고! 불과 5분 만에 3점을 넣어 승리했잖아! 너희들은 열심히 뛰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야!

(도깨비감투, 2권)

혁이　한심하구나!
원주민　쿨쿨
혁이　문명의 혜택은 받고 있다지만, 형편없이 미개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구나!

(도깨비감투, 2권)

이러한 자발성의 강조는 당시 직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사화(私事化) 전략과 연결된다. 사사화란 어떤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나 국가의 정책과 분리시켜 개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전략을 의미한다.[82] 당시 박정희는 농촌빈곤 문제의 원인을 개인 스스로의 노력부족임을 강조한다. "농사가 안 되어도 자기가 얼마만큼 자조적인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한탄을 한다든지, 정부가 왜 도와주지 않느냐 하고 정

80) 김영모, 『새마을운동연구』, 고헌출판부, 2003, pp. 1~6.
81) 정호순, 「1970년대 새마을희곡에 나타난 국가주의」, 『어문연구』, 35(2), 2007, p. 341.
82) 이용기, 「유신이념의 실천도장, 1970년대 새마을운동」, 『내일을 여는 역사』, 48, 2012, p. 76.

부를 원망한다든지”[83]하는 것은 사사화 전략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한국에 거주하며 농어촌 마을의 공동체와 농촌 새마을 운동을 연구한 브란트는 “1971년 이전의 한국농민들이 게으를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터무니없는 주장”[84]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농토와 선박의 부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농어촌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당시 권력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국민을 자발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이끌고 있으며, 근면과 질서 행위를 강조하면서 이상적 국민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철이　아저씨는 무슨 죄를 범했나요?
죄수　도둑질, 거짓말, 죄 없는 남을 모략, 공산당 앞잡이, 밀수, 싸움... 등등 헤일수도 없단다.
개똥이　나쁜 짓만 골라 하셨구나.
(요철발명왕, 어깨동무 1976년 12월호 별책부록)

조물주　인간이 죄를 범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똑똑히 보았겠지?
요철이　예, 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조물주　부디 돌아가거든 죄를 짓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라.
(요철발명왕, 어깨동무 1976년 12월호 별책부록)

또한 위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가 제시하는 가치를 어겼을 때 처벌이 따른다는 의미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계몽과 훈육이란 의미가 동시에 존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계몽이란 국민을 국가가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깨우치게 하고 이끈다는 의미와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이 따른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는 일종의 훈육(discipline)’[85]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명랑만화

83) 박정희, 「1970년 6월 10일 권농일 치사」, 『한국 국민에게 고함』, 동서문화사, 2006, p. 217.
84) 빈센트 브란트, 「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와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의 이념과 실제』, 서울대학교 새마을 운동 종합연구소, 1981, p. 488.
85) 이하나, 「1950년대 민족문화 재건 담론과 ‘민족문화’」, 『역사비평』, 94,

가 엉뚱한 소동이나 우스개 장난의 차원을 넘어서는, 특정한 지배질서 통해 근대국가에 적합한 사회구성원을 육성하는 정치적 제도로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담론을 통해 국가체제를 정당화하고 이를 지탱할 세대를 길러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Ⅳ. 결론

모든 사회의 담론은 통제, 선택, 조직, 나아가 재분배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존재하게 된다.[86] 이는 담론의 생산이 통제와 규칙 같은 제도를 통해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70년대의 명랑만화는 '국가 주도하의 심의제도', '교양 잡지라는 고급화된 매체를 통한 신뢰의 구축', '육영재단과 같은 공적 차원으로의 도입' 같은 방법을 통해 전략적으로 유통되는 하나의 담론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열화를 통한 자본과 권력의 획득, 국가주의적 담론의 전파라는 특징과 함께 어린이를 능동적 주체로 호명하면서, 훈육의 측면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는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모양 짓고 심지어 창조하고, 이에 따라 국민은 행동하는 주체로 등장한다.[87]

이러한 전략을 전개하기 위해 1970년대의 명랑만화는 담론의 형성과 확산을 위한 하나의 장으로 기능한다. 더욱이 이전 시기와 차별되는 일상성을 구현 하면서 그 존재 방식에 대한 면모를 더욱 새롭게 하고 있다. 19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만화평론가 백정숙은 "단 몇 개의 선으로 그려진 명랑만화 속의 공간은 내가 살던 곳과 비슷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동네에 있을법한 이야기로 동일시했었다"라고 회상한다.[88] 이것은 당시

2011, P. 403.

86) 미셸 푸코,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중원문화, 1993, p. 13.

87) 크리스토퍼 피어슨, 박형신 · 이택면 역, 『근대국가의 이해』, 일신사, 1998, p. 89.

88) 백정숙, 「우당탕 까르르 요철이는 발명왕」, 『요철凹凸발명왕 5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3, p. 331.

의 명랑만화가 일상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담론의 전달과 확산에 매우 적절한 매체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많은 평론가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1970년대의 명랑만화가 가지고 있는 반공사상,[89] 국가적 덕목,[90] 관제화 된 교육이념[91], 사회적 이슈의 소재화,[92] 국가에 대한 충성[93]과 같은 계몽주의적 성격의 일면을 담론이라는 틀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확인하였다는 것이 본 논문이 가진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1970년대의 '명랑만화'는 국가의 요구에 따라 국민을 일정한 방향으로 깨우치고, 체제 순응적 감정과 가치를 명랑이라는 코드 안에 위치시킨 '명랑화' 만화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60년대의 대본소 만화를 불량이라는 인식을 통해 배재시켰다면,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명랑"이라는 담론을 중심으로 불량하지 않은 매체를 통해 권력과 자본의 요구를 담아내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의 명랑만화가 권력의 정치사회적 목표를 관철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었다는 점에서, 명랑만화를 이해하는 방식이 당시의 어린이에 한정되는 차원이 아닌 현재까지 이어지는 기성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강만길, 『고쳐쓴 한국 현대사』, 창비, 2006.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 편: 평화시장에서 궁정동 까지 1권』, 인물과 사상사, 2002.

_____,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 편: 평화시장에서 궁정동 까지 2권』, 인물과 사상사, 2002.

89) 백정숙, 「신문수의 도깨비감투」, 『호호에서 아하까지』, 교보문고, 1998, p. 98.

90) 하종원, 「길창덕의 꺼벙이」, 『호호에서 아하까지』, 교보문고, 1998, p. 53.

91) 황민호, 앞의 책, p. 85.

92) 황민호, 앞의 책, p. 131.

93) 박인하, 『꺼벙이로 웃다, 순악질 여사로 살다』, 앞의 책, p. 83.

공제욱, 「1950년대 국가 정책과 자본 축적」,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1945~1991: 고난과 희망의 민족사』, 소나무, 1994.
권경민, 『세계 만화미학론』, 심포지움, 2009.
권보드래, 「연탄의 추억: 연탄파동과 오일쇼크 그리고 유신의 에너지 정책」, 『박정희 모더니즘: 유신에서 선데이서울까지』, 천년의 상상, 2015.
김성호, 『한국 만화가 55인』, 프레스빌, 1996.
김성훈, 「한국만화사」, 『한국만화를 말하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4.
김영모, 『새마을운동연구』, 고헌출판부, 2003.
김창남, 『나의 문화 편력기』, 정한책방, 2015.
김해식, 『한국언론의 사회학』, 나남, 1994.
미셸 푸코,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중원문화, 1993.
_____, 이정우 역,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2000.
_____,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나남, 2003.
_____,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지식의 의지』, 나남, 2004.
박인하, 『꺼벙이로 웃다, 순악질 여사로 살다』, 하늘아래, 2002.
_____, 『장르만화의 세계』, 살림, 2004.
_____, 「원시소년 똘비: 원시시대라는 판타지 공간에서 벌어지는 해프닝」, 『클로버문고의 향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09.
박인하 · 김낙호, 『한국현대만화사: 1945~2009』, 두보CMC, 2010.
박재동, 「생활의 숨결에 유머를 불어넣은 작가, 방영진」, 『한국만화의 선구자들』, 서울, 열화당, 1995.
박정희, 「1970년 6월 10일 권농일 치사」, 『한국 국민에게 고함』, 동서문화사, 2006.
박현재, 「푸르른 클로버의 추억」, 『클로버문고의 향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09.
백정숙, 「신문수의 도깨비감투」, 『호호에서 아하까지』, 교보문고, 1998.
_____, 「우당탕 까르르 요철이는 발명왕」, 『요철凹凸발명왕 5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3.
빈센트 브란트, 「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와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의 이념과 실제』, 서울대학교 새마을 운동 종합연구소, 1981, pp. 475~501.

서익진, 「한국 산업화의 발전양식」,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 창비, 2003.
서찬휘, 「로봇찌빠의 아버지 신문수」, 『한국의 만화가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0.
소래섭,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웅진지식하우스, 2011.
손상익, 『한국 만화통사』, 프레스빌, 1996.
_____, 『한국만화통사(하): 1945년 이후』, 시공사, 1998.
신현성, 「요철발명왕: 요란한 발명이야기」, 『클로버문고의 향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09.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4.
윤승운, 『요철凹凸발명왕 1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0.
장상용, 『한국 대표 만화가 18명의 감동적인 이야기 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04.
최열, 『한국만화의 역사: 우리만화의 발자취 일천년』, 열화당, 1995.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나남출판, 1997.
크리스토퍼 피어슨, 박형신·이택면 역, 『근대국가의 이해』, 일신사, 1998.
하종원, 「길창덕의 꺼벙이」, 『호호에서 아하까지』, 교보문고, 1998.
한배호, 『한국정치변동론』, 법문사, 1994.
한영주, 『다시 보는 우리만화: 1950~1969』, 글논그림밭, 2001.
허경, 『미셸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 읽기』, 세창미디어, 2016.
황민호, 『내 인생의 만화책』, 가람기획, 2009.

문수연, 『최요안의 명랑소설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박인하, 「한국 명랑만화 장르의 형성과 발전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8(4), 2012, pp. 43~61.
서은영, 「1910년대 만화의 전개와 내용적 특질: 『매일신보』 게재 만화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0, 2013, pp. 139~168.
윤장원, 「한국 명랑만화 작가별 캐릭터 표현연구」, 『조형미디어학』, 13(2), 2010, pp. 159~166.
이용기, 「유신이념의 실천도장, 1970년대 새마을운동」, 『내일을 여는 역사』, 48, 2012. pp. 67~91.

이정은, 「1970년대 초중반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 박정희정부의 대응」, 『한국사학보』, 38, 2010, pp. 249~282.
이하나, 「1950년대 민족문화 재건 담론과 '민족문화'」, 『역사비평』, 94, 2011. pp. 391~423.
정규영, 「미셸 푸코의 '규율 권력'과 근대교육」, 『교육사학연구』, 23(2), 2013. pp. 157~201.
정호순, 「1970년대 새마을희곡에 나타난 국가주의」, 『어문연구』, 35(2), 2007, pp. 325~350.
최성일, 「[출판] 1970년대의 어린이 잡지」, 『황해문화』, 2010, 9, pp. 381~388.

「달빛 당선동요」, 『동아일보』, 1927년 2월 21일, 3면.
「횡설수설」, 『동아일보』, 1931년 9월 28일, 1면.
「虹口地帶는 明朗化 陸戰隊副官 談」, 『동아일보』, 1937년 8월 20일, 1면.
「도시의 명랑화」, 『동아일보』, 1937년 9월 18일, 3면.
「치안확보로 명랑사회를」, 『동아일보』, 1962년 2월 8일(석간), 1면.
「환경 정리정화로 서울의 명랑화를」, 『동아일보』, 1962년 3월 5일(석간), 1면.
「밀수배 근절토록」, 『경향신문』, 1962년 10월 20일, 제7면.
「정부운명과 관련될 문제 여일부 말」, 『동아일보』, 1966년 9월 17일, 제1면.
「불량만화 2만권 압수」, 『동아일보』, 1972년 2월 3일, 제6면.
「경제질서문란행위 척결」, 『매일경제신문』, 1977년 2월 4일, 제1면.
「주택 95.4%가 재래식 난방 가정연료 현대화 시급하다」, 『경향신문』, 1979년 1월 10일, 제1면.

ABSTRACT

Discourse Analysis of the 1970s Myungrang Manwha

Kim, Dae-Keun

This article aims at a discourse analysis on the selected 1970s Myungrang Manwhas, in the cases of Ggubungi, Doggaebi Gamtu, Yochul Balmyungwang. For the analysis, the history, pre-censorship, and distribution structure of Myungrang Manwha are referenced, as well as the considerable changes and developments on the definition of 'myungrang' since the 1920s. In employing Foucauldian discourse analysis to the texts, the selected Myungrang Manwhas are analyzed as discursive formation, which emerged within the social relations of the era; the characters' dialogues are analyzed as statement. The analysis examines the discourses that the texts disseminated, and the social context of the utterance. It is demonstrated that the Myungrang Manwhas are forms of representation, which implies 'the contested acquisition on capital and power', 'the emphasis on nationalist aspects', and 'the interpellation and discipline of subject active' of the time. Moreover, it is revealed that the forms of control, such as pre-censorship, were the articulation of the will to power, which drove the discoursive formation to function as an apparatus that meticulously constituted the ruling ideology. In conclusion, the Myungrang Manwhas are rather texts that encompasses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of the era than a mere comic relief.

Key Word : Myungrang Manwha, 1970 's, Foucault, Power, Discourse

김대근
중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10279) 경기도 고양시 동헌로 305
Tel : 031-8075-1501
kdk815@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16.05.01.
심사종료일 : 2016.05.29.
게재확정일 : 2016.05.31.